

## 복음으로 거듭난 시몬 베드로가 준 미션

### - 복음으로 여는 베드로후서-

출애굽기16:1-8, 베드로후서1:4-9

정윤돈 목사님

“우주 만물을 능력으로 창조하시고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은혜 가운데서 살다가 영원한 천국갈 수 있는 신분과 권세, 축복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 사단에게 속아 이 땅에서 오만가지 고통 속에 살다가 지옥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 해결해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뿐만 아니라 신분과 권세 가지고 땅 끝까지 237나라 살릴 비전까지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메시지의 주역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현장에서 성취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반드시 교역자, 전도자들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의 응답을 받게 하시고 후대를 복음으로 살리며 서밋으로 세우는 주역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들은 예상하지 못했던 큰 어려움이 몰려오거나 그 어려움이 장기화 되어 졌을 때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지자 바로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계신데 이를 몰랐다. 그러한 불신앙적인 체질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다. 그와는 다르게 위기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전 재산을 드려 전도운동과 선교운동에 헌신하였다.

오늘은 베드로후서를 중심으로 언약의 말씀을 발견하고자 한다. 베드로후서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이 본격화 되었을 때 기록되었다. 기록 시기는 AD.66년경으로 보고 있다.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본격화되고 장기화되자 성도들 중에는 비복음적인 이단들에게 미혹되고 삶이 무너지는 성도들도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때 죽음을 앞둔 베드로 사도는 절박한 심정으로 베드로후서를 기록하였던 것이다.

### 1. 먼저 베드로를 변화시킨 완전복음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자 한다.

초창기 때 베드로는 부족한 부분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30년이 지난 후 베드로는 교회를 지키고 살리는 중요한 영적인 지도자로 변화 되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시몬(들었다)에서 베드로(반석)로 변화시킨 완전복음의 내용은 무엇일까?

(1) 베드로를 변화시킨 복음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었다. 예수님은 가야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은 대답하였다. 세례요한(개혁주의자), 엘리야(신비주의자), 예레미야(박애주의자)나 선지자(종교

인) 중의 하나라고 한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시몬 베드로가 고백한 말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이다. 이때는 베드로 자신도 이 대답의 완전한 의미를 몰랐을 것이다. 그러나 이 말씀은 평생 베드로를 성장시킨 가장 중요한 완전복음의 말씀이 되었을 것이다.

(2) 베드로 사도가 발견한 복음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 베드로 전서 1장 1절 중간에 나오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는 단어이다. ‘하나님의 의’란, 창세기 3장에서 사단에게 속아 타락시킨 이후 영원히 멸망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오직 예수님을 구원자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구원받게 된다는 것이다. 베드로는 참된 의가 무엇인가를 깨달았던 것이다.

(3)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1장 2절에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앎으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 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과 주 예수를 아는 방법이 구원의 길과 복음요절을 암송하고 성경을 읽고 강단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것이다. 이 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4) 베드로 사도는 복음이란 베드로후서 1장 4절 중간에 나온 구절처럼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땅에서 신분과 권세를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에 간다는 것이 복음이고 ‘보배롭고 큰 약속’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 안에 있는 성도 자신과 후대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RUTC의 약속을 주셨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237나라 복음화라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렘넌트서밋의 약속을 주셨다. 이러한 것들이 복음가진 우리들에게 주신 ‘보배롭고 큰 약속’이다. 우리들이 완전복음의 언약만 붙잡으면 계속해서 ‘보배롭고 큰 약속’들이 성취될 것이다.

(5) 시몬 베드로가 발견한 복음은 베드로후서 1장 9절 중간의 구절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시몬 베드로는 복음이란 ‘옛 죄’ 즉, 창세기 3장의 근본 죄 문제를 해결한 것 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의 원죄, 자범죄, 과거, 현재, 미래의 죄와 조상의 죄까지 깨끗이, 확실히, 영원히 해결해 주셨다. 만일 누구든지 이 사실을 정확히 알고 믿는다면 베드로처럼 거듭나게 될 것이다.

### 2. 두 번째로, 시몬 베드로가 두 번째 보낸 편지인 베드로후서를 통해 전한 미션들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1) 베드로사도는 성도들에게 말씀과 복음 안에서 계속해서 성장하여 완전복음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미션을 주고 있다. 그 미션이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

량을 더하라' 믿음은 복음이다. 그런데 믿음의 덕이라는 것은 '뛰어남, 탁월함'을 뜻한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복음, 뛰어난 복음으로 거듭나야 한다. 우리는 복음에 대한 훈련을 많이 받지 않았는가. 사단, 이상문제, 귀신문제, 운명, 시주팔자 문제는 오직 그리스도만 해결할 수 있다. 절제는 자신을 컨트롤하는 것이다. 많이 안다고 해서 자신을 절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세계복음화라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다. 천명, 소명, 사명 가운데서 인내하는 것이다. 경건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다. 인간적으로 다 이루었는데 교만하면 소용이 없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 그러면서 형제 우애를 가져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복음으로 성장해야 한다. 그리고 '사랑을 더하라' 우리는 아가페적인 사랑을 말한다. 우리의 절대목표인 것이다. 그래야지 세계를 살릴 수 있다.

(2) 베드로 사도의 가장 중요한 미션은 이단의 가르침을 주의하고 따르지 말라는 것이다. 2장 1절에서 22절 전체는 이단들의 실체과 그들이 사람들을 어떻게 유혹하고 타락시키는가를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다.

① 당시, 말씀을 틀리게 가르치는 이단 거짓선생들이 있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지금도 여호와증인, 신천지 등 처음에는 성경에서 출발했지만 구원받을 수 없도록 틀리게 성경을 가르치는 이단들이 많다. 그들은 성경을 끼워 맞춰서 자신들의 교리를 전하고 있다. 그래서 정확한 복음을 이는 것이 중요하다.

② 그들은 비윤리적인 행위로 성도들을 유혹하고 타락시켰다.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2장 13절에서 14절이다.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2장 18절이다.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써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런데 복음을 받은 후에도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성도들도 있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다시 타락한 사람들에게 대하여 다음과 같이 비유로 말씀하고 있다. 베드로후서 2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겠다.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③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냉소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과 잘못된 종말론을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4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모든 것은 끝이 있고, 우리 인생의 심판이 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3) 베드로 사도는 말세에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도록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전도의 미션을 주고 있다. 왜냐하면 인생과 세상의 멸망과 주님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하신다.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이 주께는 하루가 천 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 우리의 인생, 어려움이 금방 지나간다. 전도, 다락방, 성가대 당장 해야한다.

(4)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서 주님이 오실 때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서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우리의 절대목표이다. '오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지 않은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CVDIP를 발견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1. Covenant 언약이다. 베드로 사도는 죽는 날까지 교회를 지켜는 것을 언약으로 붙잡았다. 교회를 오직복음, 완전복음으로 지켜야 한다.
2. Vision, 비전이다. 우리의 비전은 이단사상과 다른 복음, 틀린 복음, 섞인 복음으로 병들어 있는 237나라와 많은 소수부족들을 오직 복음, 완전 복음이 되도록 치유하는 것이다.
3. Dream, 꿈이다.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은 24시 집중하여 도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나, 나의 것, 나의 현장을 발견하고 찾아주는 인터넷의 응답을 받아야 하겠다. 이때 꿈은 이루어 질 것이다.
4. Image, 이미지이다. 베드로가 마지막 날을 정확히 보고 알려주었던 것처럼 주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를 생생하게 앞당겨 볼 수 있어야 한다.
5. Practice, 실천이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과 미션을 실천하는 응답의 날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린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베드로의 복음과 미션을 통해서 은혜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되고 실천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